

# 잊혀진 인간의 열정에 대한 감명

## 아름다운 책의 역사

이중한 | 출판평론가 · 한국문화복지협회 회장

책의 아름다움은 장정화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책 그 자체가 미학적 창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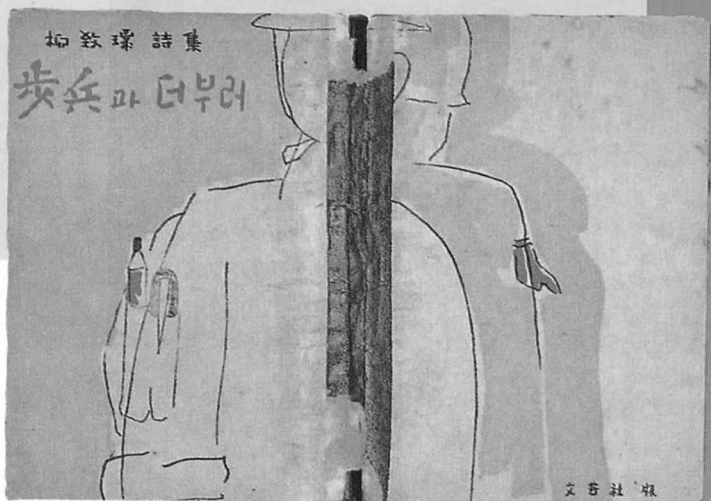
여기에 더해 책의 아름다움은

활자 · 행간과 자간을 포함한

여백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진다.

단지 종이의 색감과 촉감만으로

독자를 유인할 수도 있다.



이준이 장정한 <보병과 더부러>(유치환)

편집자가 제시한 이 글의 제목 <아름다운 책의 역사>는 최근 간행된 《우리 책의 장정과 장정가들》(박대현 편저, 열화당)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을 들춰보면 책 장정의 아름다움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진다. 특히 해방 직후 그려진 김환기의 장정화들, 염상섭 · 박종화 · 김동인 · 황순원 소설집의 표지 그림은 김환기의 그림만으로서가 아니라 작가의 문학세계를 적절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우리 것이라는 감성을 일으킨다. 길진섭의 《육사시집》, 김용준의 《무녀도》(김동리), 정현웅의 《구원의 여상》(이태준), 이준의 《보병과 더부러》(유치환) 등은 요즘 들어 무척이나 관념화된 ‘한국적 전통’이라는 구호에 일격을 가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전통은 이론이 아니라 느낌이다. 이 느낌의 유전자가 이들의 장정화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판형 자체가 황금분할의 미

하지만 책의 아름다움은 장정화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책 그 자체가 미학적 창조물이다. 우선 책의 판형 자체가 황금분할 비례에서 선

택된 미적 결정판이다. 지금은 A4, 5... B4, 5... 형으로 부르지만 46판, 국판 등의 전세대 명칭은 곧 비례의 결산이다. 이 기하학적 비례는 피라미드를 비롯해 르 코르뷔에의 <모듈러>, 몬드리앙의 <타블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강화돼온 미학이다. 이 판형에 비트로비우스의 대칭과 비대칭의 아름다움이 더해져 있다. 그러므로 책 판형의 비례만으로도 책은 인간의 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체다.

여기에 더해 책의 아름다움은 활자의 아름다움, 행간과 자간을 포함한 여백의 아름다움, 그리고 각종 자재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진다. 오늘과 같은 기능우선주의의 시대에서도 단지 종이의 색감과 촉감만으로 독자를 유인할 수 있다. 특별한 애서광이 아니더라도 때로 어떤 책의 표지나 면지나 본문용지의 느낌만을 통해서 책을 사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책의 복합적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된 전통이다. 5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구텐베르크 인쇄술시대의 책들을 보자. 그때도 책은 단지 인쇄물이었다는 것만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활자 · 삽화 · 기본자재의 미학적

선택이 끊임없이 추구됐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옛 책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아 옛 것이라는 새로운 호기심만기심 그 자체가 그 시대 최선의 아름다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선의 세련성은 오히려 이를 초월해 공감을 얻는다는 사실의 철학이다.

### 미적 감성의 총합

물질적으로만 보면 《우리 책의 장정 장정》 장된 한국 근대 도서의 자재는 실로 실로 실로 ~50년대의 도서용지란 마분지까지까지 지시대였기 때문이다. 인쇄능력 역력 역력 교할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그 그 그 다. 이것이 바로 책의 아름다움이라 이라 이 내외서를 막론하고 책의 미학은, 책은, 책은, 된 모든 참여자들의 미적 감성이 켜이 켜이 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특성을 전제전제전제 책의 역사는 원천적으로 아름다움다 또 한편 당연히 모든 책이 단지 책이 책이 책으로 아름다울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우리 아마도 표지디자이너가 가장 중요중요중!



정현웅이 장정한 <조선창국사>(정노식)

장본 본체의 표지는 지금도 변함없이 장식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크로스의 재질이나 하드바운드를 유지하는 합지의 두께 혹은 무게에 더 의지하고 있다. 천으로 씌운 두터운 책 표지의 질감이 책의 품위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질감의 핵심은 책의 견고성을 전제로 하는 생명력이다.

책 읽기로 들어서면 이때부터 책의 아름다움은 활자와 본문 편집제재와 종이의 미학으로 넘어간다. 책 읽기의 속도는 오직 이 요소들과 연결돼 있다. 아무리 좋은 글도 읽히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은 곧 활자와 편집의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 책의 미적 운명

어린이 책은 특별히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잘 만든다는 뜻이 바로 책의 미학적 성실성이다.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사회가 가진 그 시대 최선의 자재로 미적 감각의 실현을 통해 어린이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불행하게

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싼 자재로 초등학교 교과서를 만들어 왔다. 그러니 책의 미학적 감수성이 교육됐을 리 없다. 그 결과 성인이 돼서도 사실상 아름다운 책의 감수성을 더 유지하고 세련화할 수 없게 된다. 책의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의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책은 단 한편의 창조품이 아니다. 이것은 미술이나 조각과는 다른 책의 미적 조건이다. 그것은 늘 시장을 반영하고 시

장에서 결정되는 창조품이다. 책은 복제매체이고 복제는 다량일수록 의미를 갖는 것이 운명이다. 따라서 책의 미적 운명은 그 어떤 책도 수요자집단을 반사한다. 과학서적은 과학연판자를 반사하고, 문학서는 문학대중을 반사한다.

책의 아름다움의 역사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천5백년대 책들은 모두 인쇄부분보다는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인쇄 후 작업에 보다 많은 시간을 들였다. 인쇄업자들은 아름다운 채색의 그림을 그리는 데 몇 달씩 보냈고, 한권한권씩 손으로 체분했다. 그리고 인쇄업자 대부분이 지식인이었고 학자였다.

이제 와서 옛 책들에게서 느끼게 되는 아름다움은 사실상 잊혀진 인간의 성의와 열정에 대한 감명이다. 우리 옛 책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다. 부실한 자재가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고, 미숙함이 더 세련됨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기능적인 것에서 아니라 시정(市井)의 감성을 기반으로 결집됐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결국 책의 아름다움의 역사는 우리 자신의 감성의 역사다.

### 우리 자신의 감성의 역사

오늘 이 시점, 우리 사회의 미적 감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언급해 두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책의 아름다움은 지금 전통의 미학을 잃고 있다. 한지의 아름다움은 경제적 이유로 완전히 포기됐다. 한글 글자체는 전산체로 이동돼 자유롭게 변형하는 단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모체의 궤발이 진지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표지에 매달려 있는 복디자인은 표지에 표기하는 기초적인 양식까지 허물고 있다. 저자 이름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게 써서 구석으로 모는 디자인이 있는가 하면 책 제목과 주제와 설명문과 저자와 출판사의 입지가 무엇인지조차 구분하지 않고 사방에 아무데나 표시하는 난장판 표지들마저 등장한다.

책의 내용을 표지에 담지 않고 디자인의 주장만이 강조되는 책 표지 구성은 그것이 아무리 디자인 작품으로 위대하다 해도 책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더욱이 책의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것일 수는 없다.

책의 미학은 책의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책은 국가이미지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같은 영어권이면서도 미국 책과 영국 책의 이미지와 느낌이 다르다는 것에 늘 놀란다. 특히 동일본 저작이 발행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대 베스트셀러인 피터 드러커나 찰스 헨디의 미국판과 영국판을 비교해 보라. 나는 이들 책 판본을 몇권이나 중복해서 사고 있다. 단지 그 차이를 즐기기 위해서다. ●



김용준이 장정한 <무녀도>(김동리)